

## 이집트 이슬람 극렬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인 소녀들의 납치

“극단주의 이슬람 그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 기독교 여성에게 다가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녀를 위하여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연인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어느날 그들은 함께 도망가기로 결심했다. 그 여성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것이 납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모든 부모들에게 악몽과도 같다. 자신들의 자녀를 이용한 사람들로 인해 자녀들이 슬퍼하고 유혹되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이러한 잔인한 속임수는 기독교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슬람 극렬분자들에게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시몬이라는 아버지가 증언한 내용이다. 이집트의 시골마을에서 이러한 일을 매우 자주 목격한 어느 교회의 리더는 “해마다 우리 사는 마을에서 15명의 소녀들이 실종되고 있으며, 납치된 모든 소녀들은 돌아오지 않으며 더 이상 버려진 존재로 자신들을 여기고 있다”고 증언한다.

조직화된 이러한 납치는 커다란 수치이며 얼마나 많은 기독교 소녀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콕틱교회(Coptic Church)의 사회 활동가는 “80% 이상의 부모들은 이러한 일을 밝히기 원치 않으며, 자신의 딸들이 신랑감을 찾는데 어려움을 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증가하는 폭력과 더불어 이슬람 극렬주의자들에 의한 교회 폭탄 테러는 정기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감춰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전체 기독교회는 이러한 사건을 알아야 하고 기도와 협력을 이집트의 성도들의 겪고 있는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딸을 잃은 가족들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납치범과의 인터뷰

조지(George)는 이슬람 열렬 그룹의 일원으로 기독교 소녀들을 납치하는 일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이슬람 그룹을 떠나면서 이슬람 신앙도 버렸습니다. 이러한 소녀들의 납치가 그들의 신앙을 이슬람으로 강제로 개종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조지는 “살라피스트(Salafist) 조직은 사다트(Sadat) 대통령의 집권기에 등장했으며 현재에 이르러 전성기에 이르렀다”고 증언합니다.

많은 납치범들은 재정적 수입을 얻게 되고 납치한 소녀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습니다. 이러한 극렬주의자 단체들은 기독교 자체를 약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들은 많은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무슬림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옵니다. 때로 그들은 계획을 세워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훔치기도 합니다.”

조지는 딸의 아버지인 시몬의 설명을 통해 납치범들의 접근을 설명한다. “납치 그룹은 몰래

만나서 잠재적 희생자를 놓고 토론한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가정들을 살펴보고 모든 상황을 체크한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거미줄처럼 함정은 놓는다.”

그러나 항상 모든 소녀들이 가정을 떠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기도 하고, 소녀들은 거리에서 납치해서 자동차에 싣고 어디론가 사라지기도 한다.

조지는 말하기를 “곶턱교회의 성도였던 부유하고 유명한 가정의 한 소녀를 기억합니다. 다섯 명의 무슬림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집에 가두고 옷을 벗기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 남성도 옷을 벗고 위협하며 결혼해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미리암의 이야기

기독교인 미리암은 16세의 이집트 소녀입니다. 2017년에 이러한 유혹에 의해 납치된 희생자입니다. 미리암이 다니던 교회의 리더는 말하기를 “미리암의 어머니는 모든 곳을 뒤지며 미리암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이라고 불리는 젊은 남자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미리암을 납치해 자신이 일하는 농장에 가두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는 “미리암이 살리피(Salifi) 조직의 조직원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미리암은 18세가 채 되지 않았으며 부모의 동의도 없이 사라진 것은 분명 약자에 대한 납치”라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미리암의 가족들은 전혀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리암의 어머니는 말하기를 “저는 경찰들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납치범의 이름과 제 딸을 숨기고 있는 장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조사한답시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납치범의 형제와 연락을 취했을 뿐입니다.” 무슬림 소녀를 납치하고 보상금을 노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24시간 안에 해결해주었다.

조지는 경찰들이 납치범들과 협력한다고 증언한다. “기독교 소녀들의 납치범들은 거의 체포되거나 혹은 조사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납치가 신고되면 경찰은 납치가 아닌 실종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납치를 한 무슬림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놀라운 것은 경찰들이 이러한 납치를 협력하고 있다고 조지는 증언한다. “경찰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납치범들과 협력하면서 이슬람 단체들로부터 받는 재정적 보상금을 나눠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들이 마약을 납치범에게 주기도 합니다. 마약은 납치한 소녀들의 저항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심지어 경찰이 납치한 소녀들에게 이슬람 신조를 진술하도록 구타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모든 이집트 경찰들이 이와 같지는 않지만 미리암은 납치된 지 석 달 만에 구출되었다. 미리암의 교회 리더는 “우리는 미리암이 어느 곳에 있는지 발견하고 경찰에 찾아가서 알렸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미리암을 구출했고 납치범들을 체포했습니다. 우리가 미리암을 찾았을 때 미리암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의 가족은 미리암에게 있었던 일들을 외부로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족들에게 커다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매우 심한 학대를 받았으나 집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납치된 여성들이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 소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납치에 노출된 소녀들을 보호하기

납치범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소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지는 “납치범들은 이슬람 극렬단체들로부터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상액은 납치된 소녀에 따라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납치된 소녀가 유명한 목회자의 딸일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납치범들은 납치에 노출된 소녀들에게 접근합니다. 교회 리더인 시몬은 “납치범들은 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녀들을 노립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없는 경우 쉬운 납치 대상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 소녀들은 이러한 납치를 당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오픈도어 사역자 멜리사(Melissa)는 여러 해 동안 신앙을 가진 여성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 주변에서 납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납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소녀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경계선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희생자가 될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